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사업 추진 나섰다

백야대교 주변 유희부지에 217억 투입 웰니스센터 건립 “한국판 웰니스 관광 거점 육성”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사업 육성을 추진한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제3차 수시 중앙투자심사에 ‘뷰티·

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을 통과시켰다. 여수시는 관련 사업에 국비 106억 원과 도비 3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백야대교 주변의 국도 77호선 유희부지 1만9000㎡에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217억원을 투입, 스파 등 해양 웰니스 체험시설·섬 특산물 판매시설·관광안내소 등을 갖춘 ‘해양 웰니스센

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SAFETY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로 고흥~여수~남해의남중권 해상관광루트를 활성화하는 섬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섬 특산물 판매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 간 교류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각 섬들의 다양한 특산

품 판매로 섬 주민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일레븐브릿지와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해상관광루트의 활성화로 남해안 섬·해양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 ‘해양 웰니스센터’를 건립해 한국판 웰니스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전략작물 직불금 올해 첫 시행 98명에 4000만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2일까지 올해 첫 시행한 전략작물 직불금을 98명에 4000만원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기존 논 직불제를 확대 개편, 논에 벼 대신 밀, 콩, 조사료, 가루쌀 등을 재배하면 ha당 50만~480만 원을 지급하는 선택형 직불제다.

지급대상은 논에 동계작물(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사료작물)과 하계작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을 재배하는 농가다. 가루쌀은 공공기관(국립종자원 등)에서 보급하는 ‘바로미2’를 재배한 논지만 해당되며, 하계조사료는 2022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2023년도 하계에 신규모 조사료를 재배하는 필지에 한해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동계작물 재배 90농가에 3700만원, 하계작물 재배 8농가에 500만원으로 총 98명에 4000만원으로 22일까지 농가별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자격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논) 1000㎡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해당기간(전년 11월~10월까지) 동안 직불대상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단, 직불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상상창작소 수강생 모집 이순신도서관, 내달 7일까지

여수시 이순신도서관에서 ‘상상창작소’ 겨울방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20일 여수시 이순신도서관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드론 체험(드론 조립 작동), 역사이팅 로봇만들기(인공지능 코딩), 영상 제작 체험(1인 미디어 창작), 어린이 로봇 체험(로봇을 활용한 블록코딩의 이해)등 4개 강좌이다.

운영 기간은 겨울방학 동안인 내년 1월 15일부터 2월24일까지로 △드론 체험 1월15일~2월14일 △역사이팅 로봇만들기 1월 16일~2월15일 △영상제작 체험은 1월 16일~2월15일까지 △어린이 로봇 체험은 1월13일~ 2월24일까지다. 수강료는 어린이 로봇 체험은 무료, 나머지 강좌는 각 1만원이며 접수는 강좌별 10명 내의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여 희망자는 20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순신도서관(061-659-2865)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 변화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체험장을 마련하였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독거노인 세대 집수리 거북선로타리클럽

여수거북선로타리클럽(회장 하중수)이 지난 17일 광림동 독거노인 세대에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20일 여수거북선로타리클럽에 따르면 이날 10여명의 회원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독거노인 1세대에 도배, 장판, 전등 교체 등의 정비를 비롯해 세탁기 구입비도 지원했으며, 예쁜 커튼도 새로 달아드리며 집안 분위기를 한껏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중수 회장은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보람을 느끼며 올 겨울 건강하게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을 위해 꾸준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인 광림동장은 “올 겨울 가장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해주신 회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여수거북선로타리클럽은 자영업 대표 7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1년부터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노인요양시설·행정복지센터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노인요양시설과 행정복지센터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며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신체 보호에 적극 나섰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32개소와 행정복지센터 27개소에 방연 마스크 2750매를 지원했다. 이는 지난 11월 관내 중대재해 대상시설 70개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1000매 보급에 이은 것.

배부된 마스크는 화재 발생으로 긴급하게 대피할 때 유독가스 흡입을 막아주는 흡식 마스크로, 화재 시 신속한 대피 및 초기 골든타임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지난 3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 중이다.

매년 주거환경이 열악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불량한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정비 및 소방물품을 보급하는 등 화재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여수’ 조성을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 등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 17일 여수거북선로타리클럽이 관내 광림동 독거노인 세대를 찾아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여수거북선로타리클럽 제공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11년 연속 유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 지난 19일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고 20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오는 2025년 11월까지며, 이로써 시는 지난 2015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최초 선정 후 11년 연속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

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 기준은 가족친화 관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직원 만족도 조사 등이며,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한국경영인증원의 서류 및 현장심사와 최고경영자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수시는 그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선도적으로 조성코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가족사랑의 날 운영 △직원 중

합건강검진비 및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 문화활동비 지원 △가족 휴양시설 운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은 필수적 경영방식이다”며 “이를 통해 더 좋은 행정 서비스로 시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19일 ‘제3차 여수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란 기후위기에 따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의 취약부분을 발굴하고 이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에 여수시는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6월부터 2028년까지 적응 가능하고 국가 및 전남도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연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포괄해 용역을 진행했다.



여수시가 지난 19일 제3차 여수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여수시 제공

이날 최종 보고회는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 기후위기 중장기 적응 방향성과 추진전략 및 대처방안이 공유됐으며, 이에 따른 의견수렴 등이 진행됐다.

여수시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만큼 산업·에너지 부문을 포함해 물관리,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등 8대 부문 58개 세부이행과제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